

대학을 활용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일본 사례 연구

Case of Japan o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Utilizing the University

김재훈, 조준희, 이상찬*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Jae-hun Kim, Jun-He Jo, Sang-Chan Lee*

Mechanical Engineer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58554, Korea

[요약]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구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사회가 고도 성장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지탱하는 인재에 의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세계화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술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한층 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인재육성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대학은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가하여 교육기본법에 생애학습의 이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재챌린지[1]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과 시즈오카대학의 위탁업무 코스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활용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실습의 대한 실습능력을 강화시키고 현장실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and to construct educ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case of Japan o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utilizing the university. Japan has grown by the world leading technology and talented people. In a globalized world,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the overall growth of the economy. After the law 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Lifelong Learning Promotion is enacted. University of japan, the newly defined the philosophy of lifelong learning i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Then, University of japan has induced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refer to the Shizuoka University in Japan and learning support program and we studied the method for the activation of improvement and field placement of the training capacity of field training using the case of Japan on the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utilizing the university.

Key Words: Field training, Recurrent education, Re-employment,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ttp://dx.doi.org/10.14702/JPEE.2016.05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 May 2016; **Revised** 18 May 2016

Accepted 23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E-mail: sclee@mokpo.ac.kr

I. 서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통하여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자체도 평생직업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직업 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한 대학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부과된 각종 규제와 경직된 운영체제는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재직자, 실업자 등 성인실수요자의 요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대학이 성인층 교육수요자에 굳게 닫혀진 채 학령기 중심 학사운영 체계를 유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 체계가 대학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장려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대학은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학사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을 활용한 평생직업 능력개발에 대한 국외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구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일본의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 대학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일본의 대학은 앞에서 제시한 4가지 범령, 그중에서도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가한다. 1991년 대학심의회로부터 대학원에서의 사회인 취학촉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 때문에 야간대학원, 수료 요건의 완화, 주야 개강제, 세터라이트 캠퍼스, 통신제 석사과정의 설치 등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이후 1998년 대학심의회에서는 “21세기 대학상과 앞으로의 개혁방침”을 통해서 학술연구의 고도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기능의 강화, 고도전문직업인의 양성기

능 및 사회인 재학습기능의 강화, 교육연구를 통한 국제공헌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사회인의 재학습기능 강화를 위해 2001년 산업계의 요청으로 “사회인 커리어업(carrier-up) 100만인 계획”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고도 전문인 육성을 위한 위성(satellite) 캠퍼스, e-university, 사회인을 위한 단기집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인 취학의 편의 피하였으며 2006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대학, 대학원의 사회인 입학자를 100만 명으로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2004년의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장기이수 학생제도의 도입, 통신제 박사과정의 제도화 등을 제안하고 이것을 수용하여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후 국립대학이 법인화되고 대학개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교육심의회는 대학에 요구하는 7가지 기능 안에 고도전문직업인양성, 폭넓은 직업인 양성, 지역의 생애학습 거점을 넣어 사회인의 리커렌트 교육(recurrent education)에 대응한 이수형태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커리어패스 형성에 부응한 리커렌트 교육의 보급촉진, 생애학습에서의 산업계 지원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여, 2006년에는 약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생애학습의 이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B. 일본의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방향성의 변화

일본 대학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은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이 기안하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발전해 왔다. 다음은 최근 수년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개요는 제 8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거쳐 9차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2011년~2015년)을 따르면 일본의 경제사회는 고도 성장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지탱하는 인재에 의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 질 높은 노동력이야말로 국력의 원천,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다. 세계화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술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한층 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에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인재육성과 일본의 장점이었던 제조분야의 인재육성에 집중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하여 이들 분야의 성장을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재육성을 진행하면서 누구나가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높여려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일본은 판단 하였다.



그림 1. 재챌린지 지원 종합 플랜 개요
 Fig. 1. Overview of the comprehensive plan to support the recurrent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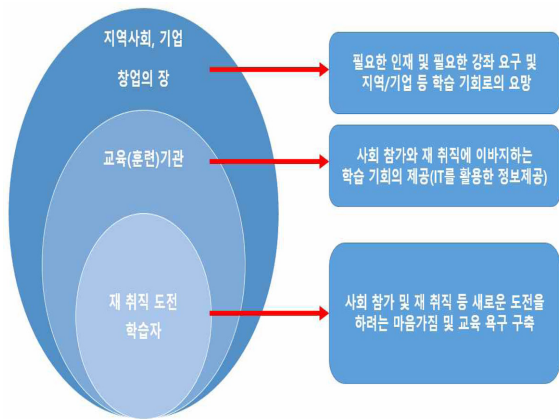


그림 2. 재챌린지를 위한 학습 지원 시스템
 Fig. 2. Learning support system for recurrent education.

이에 따라 후생 노동성의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챌린지(再Challenge)사업」 [2]을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총리실 산하에 재챌린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챌린지 지원 종합 플랜’을 그림 1과 같이 세우고 이를 근거로 문부과학성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 실행하였다.

지역사회나 기업 등이 요구하는 인재의 자질과 능력 등을 파악하고, 재도전 희망자의 상담에 응하며, 적절한 학습기회를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재도전에 이바지하는 학습지원 시스템 그림 2를 구축하였다.

대학·단체·전수학교에서 교육연구자원과 직업교육기능을 활용하며 산업계와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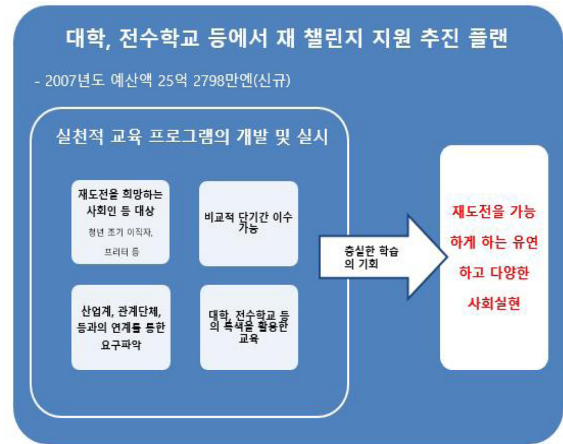


그림 3. 대학 및 전수학교의 재챌린지 지원 플랜
 Fig. 3. Plan to support the recurrent education of the university and specialized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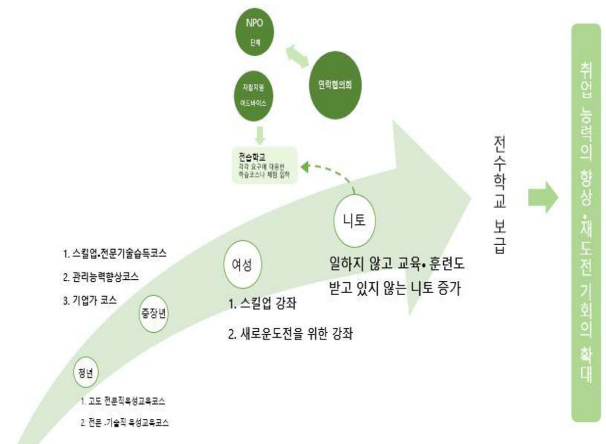


그림 4. 전수학교를 활용한 재챌린지 지원 추진 사업
 Fig. 4. Promotion project that support the recurrent education utilizing the university.

전을 하려는 사회적 인 등의 수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충분한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문부 과학성의 사업중 하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단기간에 이직한 청년과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니트족 등에게 충분한 재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전수학교가 가지는 직업교육기능을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 등에 맞춰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진정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직종 및 분야에의 재취업지원, 니트족의 직업적 자립의 지원 등 직업능력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재도전 기회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본 사업에는 대상별로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1. 청년의 재 챌린지 지원 프로그램
2. NPO단체 등과 연계한 니트족 자립 지원 프로그램
3. 사회인의 커리어업 교육 프로그램
4. 여성의 재 챌린지 지원 프로그램

청년 조기 이직자는 과거의 직무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격 및 전문적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기업에서의 실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전수학교가 직업교육기능을 활용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산업계와 연계하여 실천적 기업실습을 함으로써 조기 이직자가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직종과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코스로 나누어서 지원하였다.

1) 고도전문직육성교육 코스

특정 자격 및 전문적 지식(특정과목의 이수와 전문지식 등)을 가진 조기 이직자가 이것을 활용해서 더욱더 고도의 자격과 전문적 지식(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이수과목과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제공을 한다.

2) 전문 기술직 육성교육 코스

중소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직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실습과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한 지역산업계와 연계한 커리큘럼의 제공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코스에 조기이직의 원인을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경험을 발판으로 재도전 가능하도록 학습상담의 카운슬링 담당자를 배치하고 정기면담, 재취업후의 직장정착 등 수료 후의 팔로우업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5. 청년 재챌린지 지원 프로그램 개요

Fig. 5. Overview of the programs that support youth recurrent education.

C. 사회인 재학습 요구-대응 교육추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

국립대학법인 시즈오카대학의 「지역식품산업의 안전과 안심을 뒷받침하는 실무형 분석 오퍼레이터 육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즈오카 현은 식품산업 집적지이고 사회가 직면한 수출농산물, 식품의 위조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식품 제조공정 관리나 식, 수, 환경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분석기술자의 질, 양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시즈오카대학에서는 농학부 기술자지원실이 핵심이 되어 지역 인재 파견회사 및 시즈오카 현 내 관계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식품 안전과 안심을 뒷받침하는 실천형 재교육[4]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에게 달성도나 목적의식에 부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즉시 현장업무에 대응 가능한 실무형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강생에게는 수강수료증을 발행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소정시간의 이수를 끝낸 수강생에게는 「이수증명서」를 발행한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매니지먼트 체제와 지원체제 구축 및 교직원들의 체제정비 학의 기관과의 연계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임 특임 교수 고용 및 인재 요구 하는 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을 Fig. 6과 같은 시스템으로 얻어냈다.

시즈오카대학은 다른 대부분 대학이 한 개 코스를 개설한 것과는 달리, 그림 6에서 나타나 있는 「사회인 재학습 요구 대응교육 추진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코스 I, 「재취업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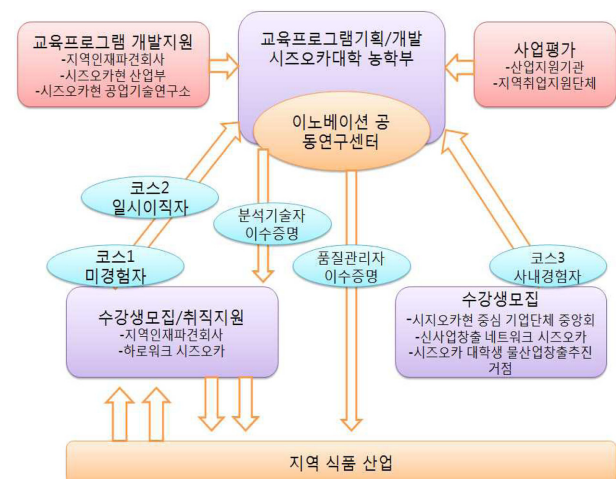


그림 6. 시즈오카대학 위탁사업 사업실시 체제

Fig. 6. Consignment business system of shizuoka university.

대상자	연수와 도달 목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LC 분석 기준 조작 메뉴얼 작성 지식 습득 • 기술자로서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자 10명 • 2개 반 편성

그림 7. 시즈오카대학 위탁업무 코스 I 개요

Fig. 7. Shizuoka university commissioning course 1.

하여 스کیل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코스 II, 「커리어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위한 코스 III, 총 세 개 코스를 개설하였다. 업체와의 산학연계, 연구과제 진행 등을 Base camp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대학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1) 코스 I: (2009.08.27~2009.09.18)

코스 I에서는 프리터를 포함한 미경험자로 분석 기술자로서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실천적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의 요청에 응한 인재육성을 이룩한다. 또한 산업체에 Base camp가 존재함에 따라 기존에 업체에서 근무하던 재직자들의 대하여 재교육 실시 및 평생교육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산업체내의 재직자들의 직무수행 및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코스 II: 1차(2009.03.23~2010.04.10), 2차(2010.03.~2010.04.07)

코스 II에서는 식품산업의 일시 이직자로 다시 분석기술자로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단기 집중 오퍼레이터 요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즉시 전력으로서 대응 가능한 재취업지원을 수행한다. 또 기업 등에 재직 중이고 분석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재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강대상으로 한다

3) 코스 III: (2009.10.06~2010.02.02)

실무경험을 쌓은 현역 분석기술자에 대하여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농학·이학연구과가 제공하는 첨단기기분석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high level 기술자에게 커리어증진 지원을 한다.

본 사업은 대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 공헌 중의 하나로서 보유한 교육·연구자원을 효율하게 사용하여 사회인의 재

대상자	연수와 도달 목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이직자 • 재취업 희망자 • 재직중이며 재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LC 최신 분석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 및 멘테넌스 지식 습득 • 기술자로서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자 15명 • 2개 반 편성

그림 8. 시즈오카대학 위탁업무 코스 II 개요

Fig. 8. Shizuoka university commissioning course 2.

대상자	연수와 도달 목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업무 체험자 • 전문지식을 지는 분석 업무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진 육성 및 제품 관리 매니지먼트 가능 • 기업인으로서의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자 5명 • 2개 반 편성

그림 9. 시즈오카대학 위탁업무 코스 III 개요

Fig. 9. Shizuoka university commissioning course 3.

교육을 도모하고, 일시 이직자 등의 이른 시일 내에 재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즈오카대학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중부지역은 식품이나 의약품제조회사가 많이 있는 곳이며, 또한 최근에는 수입식품의 독물 혼입 등 식품의 안전이나 소비자의 안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 배경도 있었다. 게다가 인재파견회사나 식품회사에서도 식품분석 오퍼레이터 육성 요구가 있었기에, 식품분석 실습이나 미생물 실습 등 농학부의 노하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 것이다.

이 사업의 개시 직후에는, 세계 경제 대 불황을 초래한 리먼 쇼크가 발생하여 일본 국내에도 현저한 불경기에 빠져 동시에 고용환경도 한순간에 악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2년 반에 걸쳐 코스 I~III의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고, 수강생 모집, 실증, 프로그램 교재 개량 등에 돌입하였다. 코스 I을 2회, 코스 II를 2회, 코스 III을 1회 실시하였다. 이 사업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분석기능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화학과분석의 기초, 그리고 기술자 윤리 등을 기획 당시부터 커리큘럼에 넣고, 이후 커리어교육과 식품계열 기업견학을 부가하여 수강생에게 기업인으로서 살아

갈 노하우를 교육한 점이다. 또한, 예습·복습의 지원 도구로 e-러닝 시스템을 제공한 것도 새로운 도입이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III. 결론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평생직업 능력개발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구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은 공통적으로 고령화의 심화 고등교육 참여율의 확대, 높은 청년실업률, 지식기반사회의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글로벌화 한 시장경쟁에 대응한 산업·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업능력향상이 불가결하고 그를 위한 직업훈련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강해지고 있다. 노동자 자신이 행하는 직업훈련과 사업주가 행하는 사내교육을 지원하여 산업·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적인 직업훈련 체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Ikuko Tozawa, "Trend of re-learning society", *National Diet Library Research and Legislative Examination Stations*, pp. 10-20, 2008.
- [2] Terada Mori Osamu, "Japan of vocational education - compared to the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the migration of point of view", pp. 10-20, Akira Hiroshi Shobo, 2009.
- [3] Terada Mori Osamu,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areer formation and employment mechanism - day transition to the profession from the school of the US in Germany", pp. 10-20, Akira Hiroshi Shobo, 2004.
- [4] Shizuoka University, "2010 working people learn again needs support education promotion program of commissioned business results report", pp. 10-20, 2011.



이 상 찬(Sang-Chan Lee)_종신회원

1988년 2월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1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석사
1996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
1998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계가공, CAE, 실천공학



김 재 훈(Jae-Hoon Kim)

2014년 2월 :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14년 6월 ~ 현재 :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기계가공, CAE



조 준 희(Jun-He Jo)

2015년 2월 :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15년 6월 ~ 현재 :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기계가공, CAE